신임 총무원장에게 바란다

사부대중 인정할 종무행정 펼치길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선출
향후 종단 운영에 해결과제 '산적'

전임 원장 퇴진 원인 · 과정 분석해
대중 · 국민들이 인정하는 행정해야
재정투명성 확보 · 감사 활성화 필요

율장 정신으로 승가 위의 회복 절실
저출가 · 신도 감소 민첩하게 대응해야
종단 안팎 비판 목소리도 섭수하길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가 다소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원행 스님이 선출되면서 원만하게 회향되었다. 이번에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은 행정학 박사로서 다양한 수행이력을 바탕으로 금산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나눔의 집 원장 등을 역임해 이론과 실천적 경험을 겸비한 종무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축하와 더불어 몇 가지 당부와 소망하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모두 4명의 스님이 출마했으나 3명이 중도에 사퇴함으로서 선거인단의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기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신임 투표적 성격을 띠었다. 사퇴한 후보 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이번 기회에 보완될 필요가 분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헌종법에 의해 여법하게 진행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하여 누구도 쉽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신임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의 향후 종무행정 추진과정에는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중도에 사퇴한 후보 스님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이 스님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해 섭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제시된 공약 중에서 종단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해 종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신임 총무원장이 해야 할 일은 전임 원장의 퇴진의 전말에 대해 발생원인과 처리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불자들을 비롯해 종도 · 사부대중의 눈높이와 평가 기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종무행정을 답습할 경우 매우 큰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단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종책을 집행하고 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투명성 확보, 관리감독과 감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사부대중이 인정하는 종무행정이 돼야 한다.

신임 총무원장 스님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종책 과제는 율장 정신을 바탕으로 승가 위의와 지도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종단 청사 밖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정기적인 집회와 조직화된 상황에서 종단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적폐라는 표현은 다소 과한 감이 있으나 종단 내외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섭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종단은 저출가와 신도 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예상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출가 문제는 소수 엘리트 출가주의 종책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많은 스님들이 종단에 유입하는 대중출가제도를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수라도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스님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승가교육과 수행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신도 감소는 조직화된 핵심 신도, 원력을 갖춘 재가보살들을 통해서 포교방법을 모색한다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소수의 스님들이 조직화된 다수의 재가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사찰을 운영하고 포교활동을 전개해야만 종단이 활로를 열어갈 수 있다.

신임 총무원장 스님은 무엇보다 실천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종단과 사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책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社說

제36대 집행부, 조계종 화합 이루길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前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이 당선됐다. 원행 스님은 당선소감에서 "오로지 사부대중만을 믿고,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위상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같은 수장의 다짐은 현재 조계종이 불협화음 상황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선거를 치른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열린 총무원장선거다. 짧은 기간 동안 조계종은 전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의혹을 비롯해 핵심 지도자급 스님들의 스캔들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설조 스님의 40여일 단식, 총무원장 직선제 운동, 전국선원수좌회 등을 비롯한 승려 결의대회까지 재야인사들은 집행부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측은 재야단체의 목소리를 반박하고, 교권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하면서 양측은 세 대결로 풀이되는 모습을 연출해 세간에 부끄러움을 남기기도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조계종이 이처럼 수개월간 쉼 없이 갈등을 지속해오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소통과 화합' '대중공의'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한 종단 운영기조로 세웠다. 그리고 총무원장 당선과 동시에 부실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제36대 집행부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당선을 확신한 채 준비해온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후보자가 당선 이후 계획까지 세워 출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부디 종무 공백 없이 종단 화합을 위해 새 집행부가 분골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주홍글씨, 불심으로 지우자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온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사회에서 받아 주질 않는다'는 말이다. 이른바 주홍글씨다. 작은 범죄라도 출소한 이들은 전과자란 이유로 배척받는다.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토예총 조사결과 출소자의 3년내 재범률이 22%를 넘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2010년 출소자 2만 5066명 중 3년 내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한 이들은 5540명에 달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기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주거지원이나 생활지원 등을 통하면 1%대로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첫 움직임을 시작했다. 서울 봉은사가 출소자를 위한 전통혼례식을 10월 5일 여는 것이다. 이날 혼례식에서는 8쌍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 전통혼례 방식을 택한 이유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해 축복해주기 위해서라니 둘만의 결혼이 아닌 대중이 함께 축하해주는 새출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교계는 노인복지, 어린이교육 등 굵직한 사회공헌에 나서왔다. 교정교화 분야에도 뛰어들어 교정교화시설에서 부처님 법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불교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부적응자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으로 공헌한다면 불교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 범죄자라는 주홍글씨, 이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불교가 나서서 깰 때다.



기자칼럼

언젠가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김지원 취재부 기자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10월, 노인의 달에 불교계는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이들과 단체의 공을 치하해왔다.

조계종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날과 개관 15주년을 기념하는 '2018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 대축제-9988해피투게더'를 개최해 복지관 어르신들과 지역주민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10월 12일 오후 1시 광진광장서 열리는 이날 축제에서는 모범어르신 및 직원을 표창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축하공연과 주민가요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한다.

천태종 강북노인종합복지관도 지역 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시니어 樂(락) 축제'를 연다. 10월 8일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라인댄스, 한국무용, 트로트와 같은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불교계는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1차적인 기부 방식을 시작으로, 불교계는 그간 했던 방식들을 참고삼아 고령자 취업컨설팅부터 노인 영화감독 및 해설전문 교육까지 노인복지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이를 위해선 "노인뿐 아니라 청년들,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의 말에는 현재 불교계의 노인복지가 노인들만 참여하고 즐기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불교계와는 다른 분위기다. 경로가 아닌 혐로(嫌老, 노인혐오) 일색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최초로 전국 노인(65세 이상) 1000명과 청 · 장년(19~64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극심한 세대 갈등을 진단했다. '노인 인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응답자 중 80.9%는 '우리 사회가 노인에 부정적 편견이 있고, 때문에 노인 인권이 침해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생겨나는 신조어와 피해사례들을 통해 청년들의 혐로 현상이 성행함을 짐작할 수 있다. '틀딱충(틀니딱딱+벌레)' · '할매미(할머니+매미)' · '연금충(국민연금으로 연명하는 벌레)' 등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들은 초등학생들까지 번지고, 청년 세대들은 너무나 쉽게 노인을 조롱한다.

전문가들은 혐로 현상을 정착시키지 않기 위해 전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소외돼가고 있는 노인들의 불안과 불만도 존재한다. 청년층은 고립된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먼저 바라보면 어떨까. 노인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 먼저 협오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물론 노인층의 역할도 중요하다.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조언'이나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달라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노년이다.

우리는 어떻게 나이들어야 할까. 젊은 날은 노인이 걸어온 길이고, 노인은 젊은 나의 미래 모습이다. 사람은 누구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이는 공평하게 먹는다.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과 차별어린 편견을 가질수록 그 화살은 미래의 나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잊지 말자. 올해 노인의 날엔 노인들은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청년들은 진심으로 노인들에 고마운 마음을 갖는지를 반추하는 시간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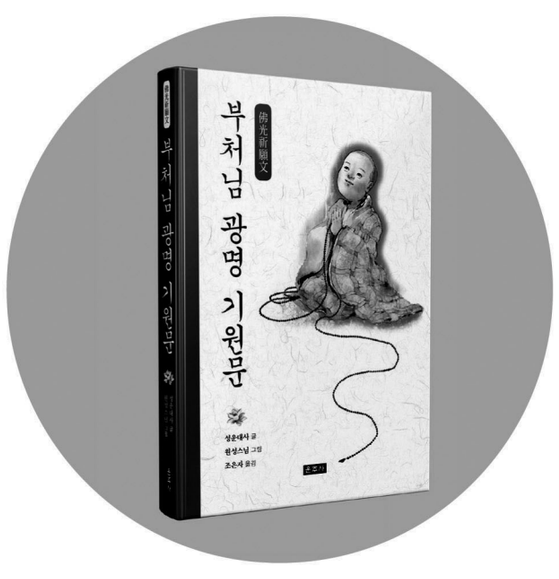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선禪으로 송시를 보다!
송시의 선학적 이해



송대의 시가詩歌는 어떻게 중국 문학의 최고봉이 되었는가?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였기에 그들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박영환 지음 / 536쪽 / 값 27,000원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
부처님 광명 기원문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기도발원문!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발원문과 동자승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원성 스님의 그림이 감동과 평온을 선물한다.
성운대사 글, 조은자 옮김 / 440쪽 / 전면컬러 / 값 23,000원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고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윤회와 인과의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200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